



# 2000년 이후 언론에 표현된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

## 컴퓨터 텍스트 형용사 분석\*

박종민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본 연구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과 영부인들이 언론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가 분석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언론보도 내 대통령과 영부인을 묘사한 긍정·부정 형용사 컴퓨터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17년간 1,080,288개의 형용사가 분석되었다. 차이검증 결과, 대통령보다는 영부인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형용사가 많은 대통령의 순서는 김대중 > 이명박, 박근혜 > 김영삼 > 노무현 > 최규하 > 노태우 > 이승만 > 박정희 > 윤보선 > 전두환 이고 영부인의 순서는 손명순 > 공덕귀 > 프란체스카 > 이희호 > 김윤옥 > 권양숙 > 육영수 > 김옥숙 > 이순자 > 흥기였다. 대통령을 표현하는 긍·부정 형용사 중 '개혁, 큰, 자유, 지적, 새로운, 다양한(긍정), 다른, 비리, 먼, 독재, 강력한, 부정적(부정)'가 가장 보편적이었고, 영부인은 큰, 자유(긍정), 다른, 먼(부정)의 보편적이었다. 최규하와 흥기 부부를 제외하고 부부간 긍·부정 표현차이는 있었으며, 공덕귀 > 윤보선, 프란체스카 > 이승만, 손명순 > 김영삼, 육영수 > 박정희 순으로 부부가 긍·부정 표현의 간극이 컸다. 즉 기사 내 공덕귀 묘사는 윤보선에 비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각 인물들의 분석이 이전 연구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핵심어:** 역대 대통령, 역대 영부인, 대통령부부, 긍정·부정 형용사, 컴퓨터 텍스트 분석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 1026884).

\*\* jongmin@khu.ac.kr

#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1941년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제정·공포한 이후 현재 19대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통령이 정부를 통치하였고, 대통령의 영부인들 역시 다양한 대국민활동을 하여왔다. 이러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은 각기 처한 정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정권 창출과 유지, 그리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노력이었다. 그 과정 속에 두 차례의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라는 격변과 고비를 넘으면서 대한민국은 큰 흐름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노정을 밟아 왔다(방정배·최윤희, 1989; 최영재, 2011).

국내에 역대 대통령에 관한 연구들(박종민, 2008; 안병만, 1993; 이정윤, 1997; 최평길, 1997;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 2002; 함성득, 2000)과 영부인에 대한 연구들(박재영·윤영민, 2008; 이승희, 1997; 함성득, 2001)이 있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역대 대통령들의 자질 차원의 성품, 능력, 행동, 업적 평가들이며, 영부인 관련 연구는 영부인들의 다양한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더불어 이러한 대통령 및 영부인 연구들은 리더십 연구<sup>1)</sup>의 한 흐름으로 연구되어 왔고, 최근에는 명성관리와 PI(presidential identity; 이하 PI) 영역의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및 영부인의 리더십과 전략적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은 시대배경과 대통령의 개인성향, 정치이념 등이 고스란히 포함되며, 대통령의 이미지는 그 국가의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의미있는 연구 영역이다.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의 연구들을 보면, 대국민 메시지에 담긴 대통령 관련 내용 연구, 언론에 나타난 대통령의 모습 연구, 역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중 대국민 메시지 내 대통령 모습은 정부와 대통령 본인의 의도가 많이 담겨진 내용이어서 본질적 모습과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국민의 평가 역시, 아무리 전문가여도 과거 100년 전의 대통령을 현재에 평가해야한다는 측정 타당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온라인상에 나타난 대통령과 영부인 관련 내용을 분석한다면 이전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들에서 벗어나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보편적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연구결과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

1) 리더십 연구는 약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연구 분야로, 그 이후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리더의 자질 연구, 리더의 행동 연구, 리더와 조직원간의 관계 및 상황 연구 등으로 확장되어 연구되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신경향 리더십 연구들이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수립 이후 약 100여년간 역대 대통령들과 영부인들이 언론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가 분석하기 위해 형용사 컴퓨터 텍스트 분석(computational text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들의 공식적인 인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R 3.4.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26일까지 네이버 뉴스 페이지 관련 기사 내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의 키워드 언어분석을 실시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각 역대 대통령(3,199,338개 기사)과 영부인(94,289개 기사) 총 21명이 언급된 관련 3,293,627개 기사를 먼저 도출한다. 이후 기간과 각 인물을 고려한 인물별 100여개의 기사 총 2,100개를 다시 도출하여 사전(事典)구성 방법(dictionary methods)을 통해 인물들을 설명하는 긍·부정 형용사들을 2,100개 기사 내에서 분석해 내하고자 한다. 이렇게 분석하여 사전(事典)화된 형용사 사전을 다시 총 3,293,627개 기사에 재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표현하는 형용사를 적용하여 대통령의 성격이나 리더십을 측정하는 연구는 고흐 형용사 리스트(Gough Adjective Check List; 이하 Gough ACL)를 이용해 미국 39대통령들의 성격차이를 분석한 사이몬톤(Simonton, 1981, 1985, 1986a, 1986b, 198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분석대상 기간(2000년에서 2017년)내 대통령과 영부인의 관련 기사 내 형용사를 전수 조사하였다는 것에 이전 국내의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차별적 연구결과의 방대함은 최근 소위 '빅 데이터'라고 칭하는 컴퓨터 텍스트 분석의 기술적 능력과 사회과학적 성과의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소 미진하게 진행되었던 대통령 및 영부인 관련 PI, 리더십 그리고 세부 사회적 쟁점에 대한 대통령 평가 연구를 그들이 통치했던 당시대의 언론보도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밝혀낸다는 것에 또 다른 학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 표현된 대통령과 영부인의 긍·부정성이 반드시 실제적 사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약 20년 동안 우리나라 거의 모든 언론을 통해 표현된 그들의 모습임을 감안한다면 과거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과 표본을 통한 내용분석의 이전의 연구 결과와는 또 다른 수준의 대표성신뢰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2. 문헌연구

### 1) 역대 대통령 관련 연구

과거 마라넬(Maranell, 1970)과 라이딩(Ridings, 1997) 등 다양한 외국 문헌에서도 대통령의 업적평가가 이루어졌다. 아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마라넬(1970)은 7가지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평가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우선 자질과 행동 관점에서 대통령의 일반적 특권(general prestige), 지도력(strength of action), 대통령 행정활동(presidential activeness), 모범적 공식 활동상(idealism of official actions), 행동의 유연성(flexibility), 그리고 대통령 업무 차원에서 행정업적(accomplishments), 정보의 양(open information) 등 이었다.<sup>2)</sup> 한편, 라이딩(1997)은 리더십 능력(leadership qualities), 업무 수행과 위기관리(accomplishments/crisis managements), 정치력(political skills), 인사 능력(appointments), 성격과 강직성(character/integrity) 등 5개의 세부 기준으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치 및 행정학자들 또는 관련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설문 연구(최평길, 1997; 안병만, 1993;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한국대통령학연구소, 2002), 객관적 성과지표를 분석한 연구(함성득, 2000), 각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후에 바람직한 리더십을 제시한 연구(이정윤, 1997)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정윤(1997)의 연구는 역대 대통령들의 각 시기적 환경과 정치이념들을 분석하였고, 각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평가하였으며, 결론적으로 6가지의 바람직한 대통령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 제시된 대통령 리더십들은 민주적 리더십, 진취적 리더십, 책임감 강한 리더십, 상황판단 및 위기관리 리더십, 중재타협 리더십, 한국인간주의적 리더십 등이다.

---

2) 일반적 특권(general prestige)은 '대통령이 지니는 일반적 위상들이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지도력(strength of action)은 대통령의 지도능력, 대통령 행정활동(presidential activeness)은 행정업무 능력, 공식 활동 모범성(idealism of official actions)은 공식 활동의 도덕 및 윤리성, 행동의 유연성(flexibility)은 대통령의 감성적 호소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대통령 업무 차원에서 행정업적(accomplishments)은 '공식 결과로 들어난 대통령이 행정업적', 대통령에 대한 정보의 양(open information)은 '대통령 관련 업무의 정보 공개 정도' 등을 말한다(박종민, 2008).

표 1. 이전 대통령 연구들의 평가 분야 (박종민, 2008)

평가 분야	베스 (Bass, 1990) <sup>3)</sup>	요클 (Yukl, 1998)	마라넬 (Maranell, 1970)	한국대통령평가 위원회(2002)	안병만 (1993)	함성득 (2000)	이정윤 (1997)	최광길 (1997)	김현주 (1999)
자질			일반적 특권 (general prestige) 지도력강도 (strength of action) 행정활동 (presidential activeness) 공식활동 모범성 (idealism of official actions) 유연성 (flexibility)	대통령의 자질 (비전제시능력, 인사관리능력, 위기관리능력, 민주적 정책결정 및 실행능력, 도덕성)	통치자 개인적 인상 (세련, 명석, 순수, 겸손, 정직, 패기, 근면) 및 특성 (역사관, 용기, 결단력, 전문성, 국민일체감, 국제화, 반대이견 수용)		민주적 리더십, 진취적 리더십, 책임감 강한 리더십	위기관리 능력, 임기중 업적, 자질, 인사, 성격	인품 (친근감, 도덕성, 솔직, 너그러움, 겸손)과 능력 (박력, 말솜씨, 국정수행 능력)
행동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개발화된 배려 지적인 자극 분발고취 거래적 리더십 조건적 보상 예외에 의한 관리	과업지향적 행동 관계지향적 행동 변화지향적 행동					상황판단 및 위기관리 리더십, 중재타협 리더십, 한국인간 주의적 리더십		
업무			행정업적(accomplishments) 대통령에 대한 정보의 양(open information)	대통령의 업적 (정치·행정, 외교·안보·통일, 경제, 교육·과학기술, 사회·복지·문화)	통치자 정책수행 만족도 (국내정치, 국내경제, 사회안정, 복지, 대외정책)	경제업적, 소득분배, 정치발전, 중화학 공업육성, 지역갈등 완화, 북방외교, 개혁추진 (정치, 행정, 규제, 금융, 부동산)			

출처: 박종민 (2008).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 - 1953년에서 1994년까지 '대한뉴스' 내 대통령의 P 연구. <한국언론학보>, 52권 3호, 151-180. 155쪽에서 인용. 원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안병만(1993)은 231명의 정치·행정학자들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들을 평가했다. 먼저 개인 인상의 긍·부정 면에서 이승만은 세련됨과 부정부패, 박정희는 패기와 강경함, 전두환은 패기와 강경함, 그리고 노태우는 세련됨과 우유부단 등이 두드러졌다. 도덕성 차원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순서였고, 인간적 신뢰감에서는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순이었다. 미래 대통령의 중요한 자질 면에서는 국민과 일체감, 용기와 결단력, 역

3) 베스의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하위자간에 이해관계와 교환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리더는 하위자에게 추종의 보상으로 물리적인 것을 제공하는 리더십 형태'를 말하며,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높은 이상과 비전을 바탕으로 큰 목표 달성을 위해 리더와 하위자가 연결되며, 리더는 하위자를 완전한 인격체로서 관리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수준 높은 인간 욕구를 하위자에게 자극하여 더 나은 '변혁(transform)'된 모습으로 바뀔 것을 주문하는 리더십을 말한다.

사관, 반대의견 수용, 국제적 감각, 전문적 식견 등의 순이었고, 능력 면에서는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실현, 경제발전, 서민 생활 안정, 사회 안정 및 질서 유지, 외교통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한국대통령학연구소(2002)는 한국의 대표적 관련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역대 대통령들을 평가하였다. 결과를 보면 최선의 대통령은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최규하 순서였고, 최악의 대통령은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순서였다. 자질 분야에서 비전제시, 인사관리, 위기관리능력에서는 박정희, 민주적 정책 결정 및 실행능력에서는 김영삼이 가장 높았다. 업적 분야에서는 정치·행정 분야는 김영삼, 외교·안보·통일 분야는 김대중, 경제 분야와 교육·과학·기술 분야는 박정희, 사회·복지·문화 분야는 김대중이 가장 높았다.

### (1) 언론학에서의 대통령 리더십과 PI 연구

PI는 '최고관리자의 정체성 및 이미지'를 뜻하며, 이러한 PI에 관한 연구는 'CEO 이미지'라는 개념으로도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신호창, 2003; 이경렬, 2004; 이규완, 2003; 정재민, 2006)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경렬(2004)은 능력, 자질, 성품, 외적 조건 등으로 CEO의 이미지 구성요소를 신호창(2003)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 경영자의 명성을 구성하는 13개의 요인들(기업 시민 의식 및 사회 공헌 활동, 정도 경영, 개인 윤리, 사내 네트워크, 대외 네트워크, 책임감, 통합적 경영 능력, 관계 능력, 개인의 전문화, 미래 지향성, 변화에 대한 대응, 인재 개발 및 활용, 권한 위임)을 분석하였다. 한편, 이규완(2003)은 삼국지 리더들의 리더십을 개인, 조직, 정통성으로 구분하였고, 정재민(2006)은 AOL Time Warner의 사례 분석을 통해 미디어에 비친 CEO의 리더 이미지가 주식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최근 언론학 내에서도 리더십, 대통령 리더십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리더십에 관련한 최근 언론학 관련 논문들은 다양하다. 한국과 미국 기업 관리자들의 리더십 비교연구(김영용, 2001), 역대 대통령 리더십 연구(박종민, 2008; 이동기·박종민, 2011), 대통령 리더십의 경합 가치 연구(박종민·김민경, 2012), 도시대표 인사말(박종민·권구민, 2011)과 리더십(박종민·김윤식, 2011) 연구 등이 있었다.

언론학 내 대통령 리더십 관한 연구들(김현주, 1999; 박종민, 2008; 박종민·김민경, 2012; 송현주, 2006; 신호창·김찬아, 1999; 이효성·이상도, 2003; 정영수, 1986; 최영재, 2006)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영재(2006)는 정치인과 대통령의 친근감, 매력감 등 주관적이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리더십과 관계가 있음을 밝힌 반면, 이효성, 이상도(2003)와 송현주(2006)는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정 정책의 언론 보도만이 대통령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미

친다고 분석하였다. 박종민(2008)의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의 대한뉴스의 통시적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고, 박종민 외(2012)는 대통령 후보들 간 리더십의 경합 가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대통령 이미지 관련은 정영수(1986)와 김현주(1999)의 연구가 있다. 정영수의 연구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이미지를 성품(personality)와 정책(policy)의 2가지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성품에 관한 항목은 서민적, 논리적, 단호성, 자상함, 정직함, 적극성, 신중함, 공정함, 믿음성, 개방성, 진실성, 타협성, 미래지향성, 합리성, 겸손, 노련, 대범, 성실, 통솔력, 창조성, 평화, 민주, 덕망, 인간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정책에 관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의 차원을 구성하여 연구하였다. 김현주(1999)는 대통령후보들의 이미지를 인품과 능력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인품의 세부 항목은 친근감, 도덕성, 솔직, 너그러움, 겸손이었으며, 능력의 세부 항목은 박력, 말솜씨, 국정수행능력의 세 가지였다. 연구결과, 유권자들은 대통령후보 이미지를 인품과 능력 두 가지 차원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고, 이미지 평가와 후보 호감도 평가는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체로 인품요인이 능력요인보다 호감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 2) 역대 영부인관련 연구

영부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 초 힐러리 클린턴의 등장으로 활성화 됐다(Burrell, 2000; Gardetto, 1997; Guy, 2006; Kelly & Boutilier, 1978; Stookkbury & Edgemon, 2003; Watson, 1997, 2000a, 2000b). 오커너와 그의 동료들(O'Connor, Nye, & Van Assendelft, 1996)은 영부인의 역할을 백악관 안주인의 관례적 역할(ceremonial role),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과 자문을 하는 정치 동반자 역할(political/representative role), 정책적 역할(policy role)<sup>4)</sup>로 분류했다. 왓슨(Watson, 2000b)은 영부인을 완전한 동반자(full partners), 부분적 동반자(partial partners), 막후 동반자(behind-the-scenes partners), 아내로서의 동반자(partners in marriage), 비동반자(non-partners)로 나누었고, 웨킨(Wekkin, 2000)은 영부인의 활동성과 영향력을 고려해 6개 유형(은둔형(the conscript), 방패형(the shield), 정치적 요부형(妖婦, the courtesan), 상담 고문형(顧問, the consigliere), 섭정형(攝政, the regent), 공동 대통령형(the co-President)으로 나누기도 했다.

---

4) 정책적 역할은 영부인용 사업(Pet Project)을 위해 위원회 의장 역할 또는 내각회의에 참석 등의 활동으로 엘렌루이스 윌슨의 <도시주거법>, 베티 포드의 <평등권 수정>, 로잘린 카터의 <정신건강관리법>, 낸시 레이건의 <미약추방캠페인>, 힐러리 클린턴의 <의료보험 개혁법> 등이 있다.

한편, 거틴(Gutin, 2000)은 대중과의 수사표현과 소통 측면에서 영부인의 유형을 3개(관례적 여주인(social hostesses and ceremonial presences), 떠오르는 대변인(emerging spokeswomen), 정치적 대리인이자 독립적 옹호자(political surrogates and independent advocates)로 나누기도 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미국과 국내에서 이루어진 영부인 연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한다.

### (1) 미국 언론학계의 영부인 연구

윈필드(Winfield, 1997a, 1997b, 2001)는 영부인의 언론 보도를 꾸준히 연구한 언론학자이다. 그녀는 '보호 및 감시 역할(escort role)과 의전 역할(protocol or social role)'과 '정책적 역할(policy role) 및 권력적 역할(power role)'로 미국 언론이 영부인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또한 그녀는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미국 언론은 사회 관습적 성 역할(gender role) 내에서만 그동안 영부인을 보도하였으며 이런 보도에서 영부인은 '오만한 귀부인'이나 '교활한 내연의 처'의 이미지화되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힐러리 이후 많은 정치인의 아내들은 긍정적으로 보도화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했다(Winfield, 1997a, 2001). 셔러와 비셀(Scharrer & Bissell, 2000) 역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힐러리 클린턴, 바바라 부시, 낸시 레이건 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사의 약 70퍼센트가 비정치적 활동을 다루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영부인의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다룬 기사는 대체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도됐다.

### (2) 국내 정치·행정학계와 커뮤니케이션학계의 영부인 연구

이승희(1997)는 영부인의 성 역할과 정치참여의도 두 기준으로 역대 영부인들의 역할을 4개로 개념화 했다(〈표 2〉참조). 전통적 내조형은 프란체스카, 공덕귀, 손명순이다.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 제2부속실의 최우선 홍보방침은 무홍보였을 정도로 영부인의 내조 활동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으며, 손명순은 청와대를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만드는데 몰두했다'(이영애, 1999). 정치적 내조형은 전통적 여성역할과 공식적 정치 역할을 겸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인 육영수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실제로 학생시위가 발생하면 대학교를 찾아가 학생들과 대화했다.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봉사활동도 적극 수행했다. 한편 변질된 정치적 내조형으로 이순자의 이미지는 "남편을 압도한다, 화려하다, 오만하다, 낭비가 심하다, 외국여행을 좋아한다 등의 부정적인 것"이었으며, 그가 추진했던 여러 사회사업도 불투명한 재정운영 때문에 결국 비판받았다(이승희, 1997)고 평가된다. 이승희(1997)는 김옥숙도 권

력 축재형으로 평가하는데, 재임 동안에는 ‘그림자 내조’의 전통적 내조형이었지만 퇴임 후에 6공 화국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함성득(2001)은 오코너 등(O'Connor, Nye, & Van Assendelft, 1996)과 왓슨(Watson, 1997)의 연구를 기준으로 영부인의 역할을 개념화 했다(〈표2〉참조). 영부인의 전문성은 지적 전문성(교육경도와 전문 직업 유무)과 정치적 전문성(정치참여 경험과 관심도, 사회 활동 경험)을 포괄한다. ‘공식 업무만 수행하는 전통적 내조형의 홍기나 손명순, 막후 정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갓속 내조형(그림자형)의 김옥숙, 정치 및 정책적 역할까지 행사하는 활동적 내조형의 육영수, 이순자,’ 또한 ‘전문성은 있지만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유형의 공덕귀,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책적 역할은 하지 않는 이희호 등의 역할을 함성득(2001)은 제시하였다.

박재영·윤영민(2008)은 육영수, 이순자, 김옥숙, 손명순, 이희호, 권양숙에 대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소극적 유형들(의전적 영부인, 대통령 의존형, 청와대 안주인)을 발견하였다. 개인적으로 보면 육영수는 대통령을 동반하지 않은 채 활동하는 독자적인 영부인, 이순자는 활동적인 영부인, 김옥숙, 손명순은 은둔적인 영부인, 이희호와 권양숙은 비공식적 활동이나 부정적인 내용으로 자주 보도된 영부인이었다. 1987년을 기점으로 민주화이전(육영수, 이순자)과 이후(김옥숙, 권양숙)를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화이후 영부인의 사생활과 구설수 기사가 급증하였으며, 단독활동 기사는 줄고 대통령과의 동반활동 기사는 증가하여 독자성을 줄어드는 양상이었다고 한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는 시대에 영부인의 활동성과 독자성은 줄고 은둔성과 부정성은 늘어나, 근래로 올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된 미국의 영부인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영부인의 역할, 영향력, 책무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영부인의 역할, 영향력, 책무 유형
O'Connor 등 (1996)의 3개 역할	관례적 역할: 전통적 여성상, 영부인의 기본 역할(내외빈 공식 접대 활) 정치적 역할: 정치적 동반자 역할(정치 조언, 지문, 로비, 특사) 정책적 역할: 국정운영과 정책결정 참여(위원회·언론 활동, 영부인용 사업)
Watson(2000b)의 5개 동반자	완전한 동반자, 부분적 동반자, 막후의 동반자, 아내로서의 동반자, 비동반자
Watson(2000b)의 11개 책무	아내·어머니, 공인·유명인사, 국가 행상의 여주인, 미국 여성의 상징, 백악관의 안주인, 캠페인 주최자, 사회적 대의(大義)의 옹호자, 대통령 대변인, 대통령·정당의 후원자, 외교관, 정치적·정권적 동반자로서의 책무
Gustin(2000)의 3개 역할	관례적 여주인 대중 소통 시도 떠오르는 대변인: 대중 소통에 더욱 노력 정치적 대리인·독립적 옹호자: 국가 정책 옹호에 매우 적극적, 언론 활동

연구자	영부인의 역할, 영향력, 책무 유형
Watson(1997)의 3개영향력	배깅속 영향력: 대통령의 동반자, 연인, 친구로서의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 약속·일정 선별, 정책자문, 선거참여 공격 영향력: 내외빈 접대 등의 관례적 역할
Wekkin(2000)의 6개 유형	은둔형: 비활동적, 대통령·정권과 정치적 거리유지 방패형: 전통적 내조자, 정치적 조언을 하지만 매우 소극적 정치적 요구형: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 상담고문형: 국정 전반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 섭정형: 정책적 영향력이 대단한 '그림자 대통령' 공동 대통령형: 대통령의 완전한 정책 동반자
Kelly & Boutilier (1978 2개 유형)	사적 영부인: 자기의 권위와 영향력을 사적 영역에 국한 공적 영부인: 공적 영역의 역할까지 스스로 규정
Winfield(1997a)의 4개 역할	보호 및 감시 역할: 대통령의 아내로서 동선을 같이하는 역할 의전적 역할: 외교적·의례적 행사 참여 노블레스 오블리주 역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 정책적 역할: 정책적 이슈를 상징하거나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역할
이승희(1997)의 4개 유형	전통적 내조형: 가정주부형+소극적 정치참여 (프란체스카, 공덕귀, 손명순) 정치적 내조형: 가정주부형+적극적 정치참여 (육영수, 이순자, 김옥숙) 전문적 참여형: 전문성+적극적 정치참여 전략적 후퇴형: 전문성+소극적 정치참여
함성득(2001)의 6개 유형	전통적 내조형: 비전문성+의례적 역할 (홍기, 손명순) 배깅속 내조형: 비전문성+정치적 역할 (프란체스카, 김옥숙) 활동적 내조형: 비전문성+정책적 역할 (육영숙, 이순자) 전략적 후퇴형: 전문성+의례적 역할 (공덕귀) 연결망으로서의 참여형: 전문성+정치적 역할 (이희호) 완전한 동반자로서의 참여형: 전문성+정책적 역할

### 3) 형용사분석을 통한 대통령 성격 분석

대통령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적용하여 그들의 성격이나 리더십을 측정하는 연구는 과거 사이몬톤의 연구가 대표적이다(Simonton, 1981, 1985, 1986a, 1986b, 1988). 사이몬톤(Simonton)은 고흐 형용사 리스트(Gough ACL)<sup>5)</sup>를 이용하여 미국 39 대통령들의 성격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각 대통령별 특징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14개의 대통령을 표현하는 성격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성격요소들은 중도감(moderation), 다정함(friendliness), 지적임(intellectual brilliance), 권모술수(Machiavellianism), 균형 및 침착(poise and Polish), 성과주의(achievement drive), 강력함(forcefulness), 유머(wit), 육체적 매력(physical attractiveness), 사소함(pettiness), 정돈과 청결(tidiness), 보수성(conservatism), 불통

5) Gough ACL는 무심한(absent-minded)에서부터 엉뚱한(zany)에 이르기까지 300개의 형용사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Gough & Heilbrun, 1965), 사이몬톤(1986b)은 이 형용사를 이용한 성격평가 리스트를 활용하여 미대통령의 성격평가를 과거 대통령을 묘사했던 형용사들을 다양한 대통령 기록물(the *Encyclopaedia Britannica*, *Current Biography* 1940-1983, *American history compendia* 등)의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inflexibility), 평화주의(pacifism)이며 관련 형용사는 <표3>와 같다.

**표 3. 형용사를 이용한 미대통령의 성격요소(Simonton, 1986b)**

대통령 성격요소	관련 형용사
중도감(moderation)	검소한(moderate), 온화한(modest)
다정함(friendliness)	다정한(friendly), 사교적인(outgoing, sociable)
지적임(intellectual brilliance)	관심이 많은(interests wide), 예술적인(artistic), 창의적인(inventive)
권모술수(Machiavellianism)	교활한(sly), 속이는(deceitful), 부도덕한(unscrupulous),
균형 및 침착(poise and Polish)	균형잡힌(poised), 세련된(Polished, Sophisticated)
성취주의(achievement drive)	근면한(industrious), 끈질긴(persistent)
강력함(forcefulness)	활기찬(energetic), 활동적인(active)
유머(wit)	유머가 있는(humorous, witty)
육체적 매력 (physical attractiveness)	잘생긴(handsome, good-looking)
사소함(pettiness)	욕심이 많은(greedy), 자기연민의(self-pitying)
정돈과 청결(tidiness)	방법론적인(methodical), 조직화하는(organized), 절약하는(thrifty)
보수성(conservatism)	보수적인(conservative), 전통적인(conventional)
불통(inflexibility)	고집센(stubborn, persistent)
평화주의(pacifism)	평화적인(peaceable)

루벤저 외(Rubenzler, Faschingbauer, & Ones, 2000)는 41명이 전 대통령들의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 수정된 NEO 성격 목록(Personality Inventory)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한 5가지의 성격차원들로 대통령을 평가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예민성(neuroticism), 솔직함(openness), 쾌활함(agreeableness) 순으로 특징화되었으며,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성실성, 예민성, 외향성, 쾌활함, 솔직함 등의 순으로 성격화되었고, 링컨의 성격은 솔직함, 예민성, 외향성, 성실성, 쾌활함의 순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 3. 연구문제

이제까지 기존 연구문헌들을 통해 다양한 관점의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위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전 연구들 중 정부 및 대국민 메시지 내 대통령 모습은 정부와 대통령 본인의 전략적 의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실제 대통령의 모습과 정부에서 대국민

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대통령의 모습 간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모든 역사적 사실이 그러하듯이 오히려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과연 몇 십 년 전 대통령에 관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단순한 설문평가가 어떤 의미를 가질 가 방법론적 타당도에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 실제로 역사적 사실의 객관성이란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약 20년간에 국내 거의 모든 언론사들의 기사가 포함된 포털 내 나타난 대통령과 영부인의 모습에 관한 표현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가 과거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보편적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분석의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이러한 빅 데이터 분석은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결과라는 것에 또 다른 연구의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들의 공식적인 인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역대 대통령들과 영부인들의 인상은 2000년 이후 언론보도 내 긍·부정 형용사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위와 같이 <연구문제1>에서는 우선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긍·부정 형용사는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각 인물을 묘사하는 긍·부정 형용사의 빈도가 각 인물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1.** 긍·부정 형용사 표현에 나타난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의 차이는?

**연구문제 2-2.** 긍·부정 형용사 표현에 나타난 역대 대통령 간의 차이는?

**연구문제 2-3.** 긍·부정 형용사 표현에 나타난 역대 영부인 간의 차이는?

**연구문제 2-4.** 긍·부정 형용사 표현에 나타난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 부부 간의 차이는?

최종적으로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의 각 개인을 표현하는 가장 주요한 긍·부정 형용사 표현은 무엇인지를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1.** 역대 대통령별 가장 주요한 긍·부정 형용사 표현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2.** 역대 영부인별 가장 주요한 긍·부정 형용사 표현은 무엇인가?

##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들의 공시적인 인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R 3.4.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네이버 정보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의 키워드 언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방법은 최근 컴퓨터 텍스트 분석(computational text analysis)의 방법 가운데 사전(事典)구성 방법(dictionary methods)<sup>6)</sup>을 취하고 있다.

### 1) 대통령·영부인을 표현하는 긍·부정 형용사 추출 코드

본 연구는 첫째, 17년간 ‘000 대통령’, ‘000 여사’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기사 전수조사(총 3,293,627개 (대통령 기사 3,199,338개 + 영부인 기사 94,289개 도출)), 둘째, 사전(事典)구성 방법을 위해 대통령과 영부인을 표현하는 긍정과 부정형용사의 교차조회를 통해 사전(事典)구성하기, 셋째, 구성된 사전을 전체 전수 조사된 기사에 재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1,080,288개 형용사 (대통령-긍정 635,346개, 대통령-부정 423,258개, 영부인-긍정 7,459개, 영부인-부정 14,225개)가 도출되어 분석되었다. 보다 자세하게 각 단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기사 수집과 형용사 추출을 위해 R 3.4.2를 활용하였다. 우선 네이버 뉴스 페이지를 검색하여 기반으로 스크랩하는 코드를 작성한 후 이를 통해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26일이며 ‘000 대통령’, ‘000 여사’처럼 각각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된 뉴스를 메인뉴스와 관련뉴스까지 스크래핑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전수 조사하였다. 전수 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사건수는 각 인물별로 다음과 같다.

대통령(가나다 순)은 김대중 260,674개, 김영삼 99,885개, 노무현 616,204개, 노태우 48,592개, 박근혜 1,111,173개, 박정희 140,856개, 윤보선 4,804개, 이명박 780,756개, 이승만 45,710개, 전두환 84,458개, 최규하 6,226개이며, 영부인(가나다 순)은 공덕귀 181개,

---

6) 사전구성 방법(dictionary methods)은 텍스트 분석을 위해 사전에 분석을 위한 관련 사전 (dictionary)을 구성한 후에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관련 긍·부정 형용사 사전을 미리 구성한 후에 관련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권양숙 24,509개, 김옥숙 572개, 김윤옥 18,986개, 손명순 3,453개, 유희수 14,859개, 이순자 1,602개, 이희호 28,935개, 프란체스카 798개, 홍기 394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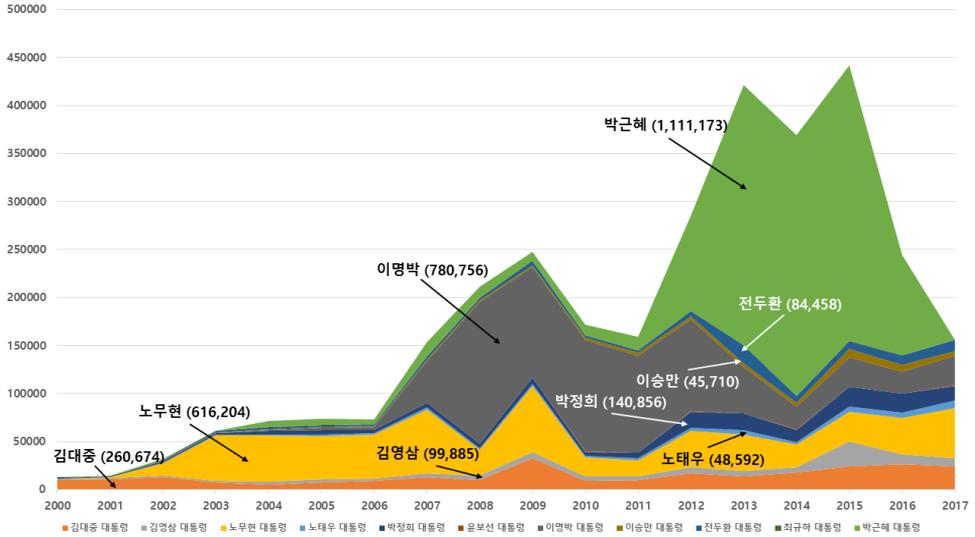
둘째, 컴퓨터 텍스트 분석(computational text analysis)의 방법 가운데 사전(事典)구성 방법을 적용하였다. 긍정 및 부정 형용사 사전을 만들기 위해 검색된 뉴스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17년의 분석기간과 21명의 인물이 모두 균등하게 고려되는 과정을 통해 총 2,100개의 기사를 활용하여 연구자 3인이 긍정 및 부정 형용사의 기준 테이블을 작성하였다. 긍정형용사는 215개이고 부정형용사는 총 230개로 총 445개의 긍·부정 형용사가 도출되었다. 긍·부정 형용사 추출 과정은 대통령 11명(박근혜 포함)과 영부인 10명이 관련 기사 100개 총 2,100개의 기사를 분석하여 추출하였다.

셋째, 위 과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긍정·부정 형용사 기준 테이블과 뉴스 스크래핑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매치하였다. 즉, 뉴스 스크래핑 데이터베이스 내 도출된 형용사가 설명인물 바로 앞에 포함된 '긍정·부정 형용사 000 대통령', '긍정·부정 형용사 000 여사'로 기술된 기사들을 모두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각각의 대통령과 영부인의 데이터베이스별로 동일논리를 적용하여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2중의 반복문과 1개의 조건문에 의해 작동한다. 상세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치하는 형용사를 기록하기 위해 기사 데이터베이스의 행(row)마다 adj1~adj12까지 NA의 벡터를 생성한 후 1 반복자를 뉴스 데이터베이스의 개수만큼 반복시키고 i 반복자를 긍·부정 형용사 기준테이블의 길이만큼 반복시킨다. 그 다음 i번째 긍·부정 형용사 기준테이블의 자료와 1번째 뉴스 데이터베이스의 본문 문장의 자료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면 greped 벡터에 해당 형용사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조건문에서 greped 벡터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으면 next명령문에 의해 반복문의 최상위로 돌아간다. 만약 형용사가 발견되어 greped 벡터에 기록이 되었다면 개별 기사마다 미리 생성된 adj1~adj12에 차례로 형용사가 기록된다. 즉 1 반복자는 뉴스 데이터베이스의 길이이므로, 각각의 뉴스마다 445개의 긍·부정 형용사 가운데 실제로 형용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지 찾아내어 최대 12개까지 기록하였다.

넷째, 매치작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뉴스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각각의 뉴스마다 각각의 형용사가 몇 개나 있는지를 알기 위해 reshape하였다. 이후 각각의 인물별로 각각의 형용사가 몇 개 있는지, 각각의 인물별로 긍·부정 형용사가 몇 개 있는지 알기 위해 aggregated table을 생성하였다. 즉, 전수데이터인 '000 대통령' 총 3,199,338개와 '000 여사' 총 94,289개의 기사에서 445개 긍·부정 형용사를 조회한 결과, 대통령-긍정 635,346개, 대통령-부정 423,258개, 영부인-긍정 7,459개, 영부인-부정 14,225개, 총 1,080,288개의 형용사를 조회해내었다.

세부 내용은 아래 그림1, 2와 같다.

본 연구는 컴퓨터 텍스트 분석을 실시한 이후 보다 세부적으로 각 인물을 묘사하는 긍·부정 형용사의 빈도가 각 인물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노태우	박근혜	박정희	윤보선	이명박	이승만	전두환	최규하
260,674	99,885	616,204	48,592	1,111,173	140,856	4,804	780,756	45,710	84,458	6,226

그림 1. 대통령 기사량 추이 (총 3,199,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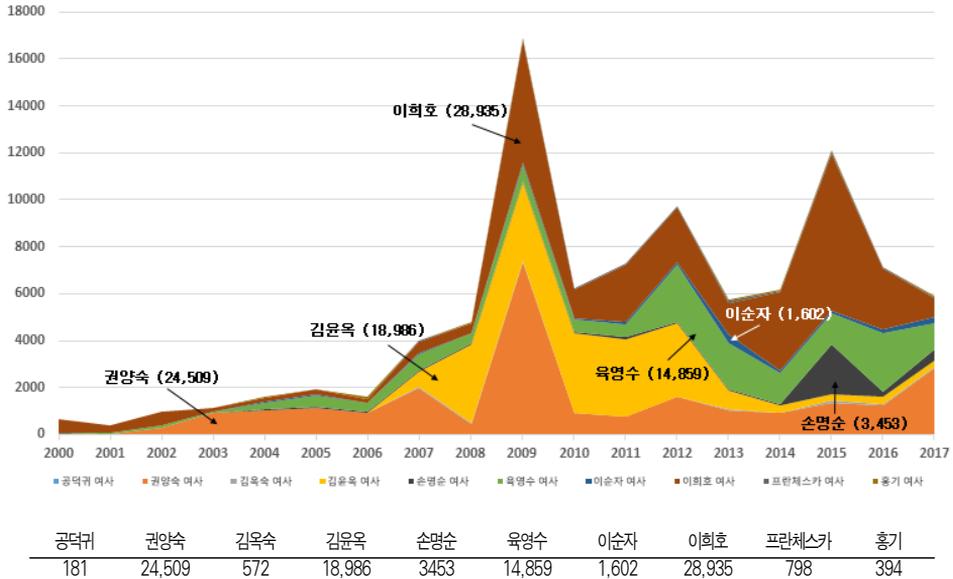


그림 2. 영부인 기사량 추이 (총 94,289)

표 4. 대통령과 영부인 긍정·부정 형용사

순위	대통령				순위	영부인			
	긍정형용사	총합계	부정형용사	총합계		긍정형용사	총합계	부정형용사	총합계
1	개혁	93,875	다른	55,468	1	큰	2,141	다른	1268
2	큰	73,708	비리	41,251	2	애도	1,392	먼	1214
3	자유	62,038	먼	40,440	3	자유	822	비리	805
4	지적	61,968	독재	31,376	4	세계화	630	독재	242
5	새로운	42,595	강력한	15,674	5	지적	545	불편한	157
6	적극적	21,921	부정적	13,957	6	새로운	446	격한	146
7	애도	14,304	심각한	8,216	7	바른	439	조용한	140
8	다양한	14,081	불통	7,876	8	다양한	347	전통적	136
9	긍정적	13,171	독재자	6,223	9	적극적	339	별다른	131
10	젊은	11,910	격한	6,209	10	개혁	320	조사를 받은	119
11	실질적	11,467	부정적인	5,937	11	젊은	296	나쁜	116
12	바른	10,452	실패한	5,874	12	아름다운	251	부정적	112
13	적극적인	9,213	부정부패	5,712	13	가까운	234	평범한	110
14	전략적	8,499	기득권	5,548	14	좋아하는	231	이론	99
15	가까운	8,352	나쁜	5,303	15	따뜻한	215	슬픈	97
16	상당한	6,927	거친	5,174	16	열심히	206	침통한	97

순위	대통령				순위	영부인			
	긍정형용사	총합계	부정형용사	총합계		긍정형용사	총합계	부정형용사	총합계
17	최고의	6,335	부정선거	4,923	17	각별한	197	거친	96
18	열심히	6,174	무책임	4,815	18	사랑하는	189	고집	88
19	최초로	5,824	비판적	4,805	19	최초로	170	아쉬움	84
20	유일한	5,203	논란의	3,963	20	최고의	169	소외된	80
21	평화적	4,829	고집	3,864	21	긍정적	162	호소한	75
22	긍정적인	4,817	독재정권	3,742	22	믿는	145	인타까운	68
23	치열한	4,710	불편한	3,714	23	적극적인	143	상징적	67
24	실질적인	4,603	별다른	3,661	24	조용한	140	가난한	62
25	올바른	4,517	단호한	3,557	25	훌륭한	128	심각한	60
26	뜨거운	3,800	조용한	3,428	26	애뜻한	126	독재자	55
27	믿는	3,794	전통적	3,393	27	수수한	115	강력한	54
28	밝히는	3,746	제왕적	3,194	28	추모하는	108	무책임	49
29	사랑하는	3,633	상징적	3,162	29	실질적	105	갑작스러운	49
30	각별한	3,470	물러난	3,112	30	화려한	97	전통적인	49
31	도덕적	3,329	과도한	2,668	31	유일한	92	소극적	46
32	훌륭한	3,314	불행한	2,542	32	인간적	91	부정적인	45
33	높이 평가	3,277	저지른	2,490	33	상당한	88	물러난	43
34	대표하는	3,196	아쉬움	2,473	34	격려한	88	불행한	42
35	상징적	3,162	소극적	2,402	35	건강한	85	논란의	39
36	역사적인	3,152	아픈	2,379	36	뜨거운	84	숨은	39
37	따뜻한	3,134	무책임한	2,343	37	대표하는	83	전형적	38
38	정확한	3,050	인타까운	2,333	38	정확한	83	비리의	37
39	세계화	2,985	비리의	2,316	39	자랑스러운	82	무책임한	37
40	아름다운	2,382	과오	2,280	40	인기를	77	저지른	36
41	추모하는	2,286	바보	2,147	41	전략적	73	불통	35
42	인기를	2,213	빨갱이	2,140	42	기쁜	72	무너진	35
43	화려한	2,118	부끄러운	2,116	43	축하하는	70	역울한	34
44	진보적	2,069	보수적	2,113	44	격려하는	70	시달린	29
45	깨끗한	1,965	집착	2,095	45	역사적인	68	아쉬운	29
46	두터운	1,910	조사를 받은	2,048	46	인사하는	68	합거운	27
47	서민의	1,909	전형적	1,934	47	소박한	68	실패한	25
48	활발한	1,811	무시한	1,932	48	상징적	67	비판적	24
49	좋아하는	1,799	무너진	1,732	49	평화적	65	바보	24
50	인간적	1,788	일방적인	1,726	50	치열한	65	왜곡된	24

기타	지원한, 자랑스러운, 개혁적, 조용한, 비림직한, 건강한, 적합한, 엘리트, 도운, 든든한, 수수한, 수평적, 축하하는, 당당한, 선거의 여왕, 유지한, 격려한, 격려하는, 거침없는, 솔직한, 대중적, 건전한, 인사하는, 진솔한, 헌신한, 기쁜, 충실한, 보통사람, 인간적인, 머물고 있는, 현명한, 구원투수, 부드러운, 헌신적, 한국적, 파괴력, 존경받는, 중시한, 참신한, 겸손한, 서민적, 빛나는, 활약한, 열정적, 자연인, 부합한, 협력적, 아끼는, 소박한, 탄력적, 자유주의적, 좋았던, 건국한, 소탈한, 공헌한, 막역한, 인도주의적, 헌신하는..	걱정하는, 장기집권, 가난한, 외면한, 분노하, 패배한, 극단적인, 참담한, 구시대, 억울한, 숨은, 어두운, 불안한, 전통적인, 무서운, 평범한, 왜곡된, 아쉬운, 옹호하는, 호소한, 자화자찬, 불통의, 직설적, 갑작스러운, 허수아비, 미온적, 조롱하는, 오래된, 슬픈, 침통한, 독선적, 미흡한, 상실한, 분노한, 소외된, 이루지 못한, 책임져야 할, 권위적, 저버린, 급락한, 독단적, 엇갈리는, 실추, 과격한, 어처구니없는, 후안무치, 비겁한, 어색한, 유체이탈, 얼룩진, 보수세력의, 반민주, 적 거리가 먼, 보통 사람, 어이없는, 왕따, 제한된...	기타	활발한, 도덕적, 헌신적, 인간적인, 실질적인, 지원한, 밝히는, 올바른, 소탈한, 긍정적인, 헌신한, 머물고 있는, 도운, 단아한, 높이 평가, 예쁜, 서민적, 깨끗한, 현모양처, 부드러운, 겸손한, 극진한, 선호한, 당당한, 솔직한, 두터운, 든든한, 존경받는, 엘리트, 대중적, 선거의 여왕, 관심이 많은, 건전한, 서민의, 한국적, 가정적, 진솔한, 잔잔한, 진보적, 적합한, 겸손한, 세심한, 보통사람, 동근, 자상한, 바람직한, 공헌한, 헌신하는, 기부하는, 수고한, 귀족풍의, 유지한, 그리워하는, 친근한, 깔끔한...
				조출한, 부끄러운, 부정부패, 오래된, 어두운, 기득권, 부정 선거, 과도, 빨갱이, 보통 사람, 보수적, 특혜 계약 의혹, 일방적인, 장기집권, 참담한, 불안한, 어색한, 고수한, 권위적, 서운한, 독재정권, 단호한, 무서운, 이루지 못한, 수사를 받은, 걱정하는, 냉랭한, 외로운, 미흡한, 엇갈리는, 과격한, 집착, 극단적인, 서면조사를 받은, 외면한, 패배한, 직설적, 실추, 왕따, 싫은, 이슬이슬한, 과도한, 분노하, 옹호하는, 썰렁한, 제약적, 고전적, 미온적, 조롱하는, 독단적, 비겁한, 싸늘한, 쌀쌀한, 구시대, 어이없는, 제한된, 우울한, 무시한, 책임져야 할, 의혹을 받은, 고집불통, 병든, 그림자형, 안쓰러운, 힐체어 탄, 상실한, 분노한, 저버린, 유체이탈, 거리가 먼, 뽀족한, 갑작스러운, 보물을 수수한...

## 5. 연구결과

〈연구문제 1〉은 2000년 이후 언론보도 내 긍·부정 형용사를 통해 역대 대통령들과 영부인들의 인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이다. 이 연구문제는 위 〈표 4〉의 결과로 분석이 가능하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형용사 중 가장 큰 빈도는 ‘개혁, 큰, 자유, 지적, 새로운, 적극적, 애도, 다양한, 긍정적, 젊은’ 순이었고, 부정적 빈도는 ‘다른, 비리, 먼, 독재, 강력한, 부정적, 심각한, 불통, 독재자, 격한’ 순이었고, 영부인에 대한 긍정적 형용사의 가장 큰 빈도는 ‘큰, 애도, 자유, 세계화, 지적, 새로운, 바른, 다양한, 적극적, 개혁’ 순이었고, 부정적 빈도는 ‘다른, 먼, 비리, 독재, 불편한, 격한, 조용한, 전통적<sup>7)</sup>, 별다른, 조사를 받은’의 순이었다.

더불어, 대통령과 영부인을 표현하는 긍·부정 형용사 가운데 대통령은 개혁, 큰, 자유, 지적, 새로운, 다양한<sup>8)</sup>(긍정), 다른, 비리<sup>9)</sup>, 먼, 독재, 강력한<sup>10)</sup>, 부정적<sup>11)</sup>(부정), 그리고 영부

7) 영부인을 표현하는 ‘조용한’과 ‘전통적’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인 경우가 많아 부정형용사에 포함하였다.

인은 큰, 자유 (긍정), 다른, 먼 (부정)의 형용사가 모든 대상자들을 표현하는 데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다음 <연구문제 2-1>인 긍·부정 형용사 표현에 나타난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긍·부정 형용사 간의 교차분석 결과 <표 5>, 대통령 보다는 영부인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영부인 보다는 대통령의 역할이 부정적 평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임이 가장 큰 이유로 이해되었다.

표 5.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의 긍·부정 형용사 표현 차이

		표현		전체	
		긍정	부정		
인물	대통령	635,346(60.0%)	423,258(40.0%)	1,058,604(98.0%)	$\chi^2 = 277.230$ df = 1 p < .01
	영부인	14,225(65.6%)	7,456(34.4%)	21,684(2.0%)	
	전체	649,571(60.1%)	430,717(39.9%)	1,080,288(100.0%)	

표 6. 역대 대통령들의 긍·부정 형용사 표현 차이

		표현		전체	
		긍정	부정		
대통령	이승만	11,161(47.2%)	12,486(52.8%)	23,647(2.2%)	$\chi^2 = 121,605.703$ df = 10 p < .01
	윤보선	746(46.8%)	849(53.2%)	1,595(0.2%)	
	박정희	28,378(46.9%)	32,184(53.1%)	60,562(5.7%)	
	최규하	692(51.1%)	663(48.9%)	1,355(0.1%)	
	전두환	11,824( <b>42.3%</b> )	16,107( <b>57.7%</b> )	27,931(2.6%)	
	노태우	8,116(48.0%)	8,804(52.0%)	16,920(1.6%)	
	김영삼	20,924(61.2%)	13,275(38.8%)	34,199(3.2%)	
	김대중	55,845( <b>62.7%</b> )	33,211( <b>37.3%</b> )	89,056(8.4%)	
	노무현	126,327(60.7%)	81,839(39.3%)	208,166(19.7%)	
	이명박	154,774( <b>62.4%</b> )	93,414(37.6%)	248,188(23.4%)	
	박근혜	216,559( <b>62.4%</b> )	130,426(37.6%)	346,985(32.8%)	
	전체	635,346(60.0%)	423,258(40.0%)	1,058,604(100.0%)	

8)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에서만 '다양한'이 순위 밖에 있었다.

9) 윤보선만 '비리'라는 부정형용사가 매우 적었다.

10)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만 '강력한'이라는 부정형용사가 매우 적었다. '강력한'의 의미는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해 부정형용사에 포함하였다.

11) 전두환, 노태우는 너무 다양한 부정형용사가 있어 '부정적'이라는 단어가 순위 밖에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2>인 긍·부정 형용사로 표현한 11명 전 대통령 간의 차이를 보면 <표 6>, 역시 전두환(대통령표현 생략)이 가장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었고, 김대중이 가장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긍정형용사가 많이 사용된 대통령의 순서는 김대중 > 이명박, 박근혜 > 김영삼 > 노무현 > 최규하 > 노태우 > 이승만 > 박정희 > 윤보선 > 전두환 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와 이명박의 경우 오히려 노무현보다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는 본 분석 자료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26일까지였기 때문에 판단되며, 추후 연구를 통해 변화도 가능하리라 추측된다. 노무현 보다 김영삼이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특징적이었다. 분석기간에 김영삼은 과거의 인물이었고 노무현은 현직에 있었던 것도 원인일 수 있다.

표 7. 역대 영부인들의 긍·부정 형용사 표현 차이

		표현		전체	
		긍정	부정		
영부인	프란체스카	185(71.7%)	73(28.3%)	258(1.2%)	$\chi^2 = 160.032$ df = 9 p < .01
	공덕귀	44(73.3%)	16(26.7%)	60(0.3%)	
	육영수	2,803(61.6%)	1,751(38.4%)	4,554(21.0%)	
	홍기	86(56.2%)	67(43.8%)	153(0.7%)	
	이순자	269(56.3%)	209(43.7%)	478(2.2%)	
	김옥숙	124(59.9%)	83(40.1%)	207(1.0%)	
	손명순	939(76.4%)	290(23.6%)	1,229(5.7%)	
	이희호	3,712(68.9%)	1,676(31.1%)	5,388(24.8%)	
	권양숙	2,972(64.2%)	1,659(35.8%)	4,631(21.4%)	
	김윤옥	3,091(65.4%)	1,635(34.6%)	4,726(21.8%)	
전체	14,225(65.6%)	7,459(34.4%)	21,684(100.0%)		

<연구문제 2-3>인 긍·부정 형용사 표현에 나타난 10명의 역대 영부인 간의 차이 <표 7>를 보면, 손명순, 공덕귀, 프란체스카는 긍정형용사의 출현이 가장 많았고, 홍기, 이순자는 부정형용사의 출현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긍정형용사가 많이 사용된 영부인의 순서는 손명순 > 공덕귀 > 프란체스카 > 이희호 > 김윤옥 > 권양숙 > 육영수 > 김옥숙 > 이순자 > 홍기 였다.

전 대통령과 영부인의 긍·부정 표현을 부부간의 차이 <연구문제 2-4>로 살펴보면 <표 8>, 공덕귀 > 윤보선, 프란체스카 > 이승만, 손명순 > 김영삼, 육영수 > 박정희 순으로 부부가 긍/부정 표현의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규하와 홍기 부부 이외 부부간에 대통령은 영부인에 비해 부정적 표현이 많았는데, 공덕귀는 남편인 윤보선에 비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된 반

면 육영수는 박정희 보다 약간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부부간 긍·부정 표현차이는 모두 통계적 차이가 있었으며, 최규하와 홍기 부부 만이 긍·부정 표현차이는 모두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최근에는 손명순 여사에 대한 긍정표현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초창기 영부인에 대한 긍정적 표현이 많았으며, 공덕귀, 프란체스카, 육영수 순으로 긍정표현이 많았다.

최종적으로 역대 대통령 <연구문제 3-1>과 영부인 <연구문제 3-2>의 각 개인을 표현하는 가장 주요한 긍·부정 형용사는 무엇인지를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긍·부정 형용사 가운데 대통령은 개혁, 큰, 자유, 지적, 새로운, 다양한(긍정), 다른, 비리, 먼, 독재, 강력한, 부정적(부정), 그리고 영부인은 큰, 자유(긍정), 다른, 먼(부정)의 형용사가 모든 대상자들을 표현하는 데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각 개별 인물들의 특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이 형용사들을 제외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대통령과 영부인 각 인물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9, 10>와 같다. <표9, 10>에서와 같이 각 인물별 주요 긍·부정 형용사의 선별 기준은 먼저 각 인물별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10개의 형용사 중 모든 인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각 인물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형용사들(자유, 큰, 지적, 개혁, 새로운(긍정), 다양한 독재, 먼, 다른, 비리 강력한, 부정적(부정)) 이외 각 인물에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형용사들을 해석에 포함하였다.

부부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이승만은 ‘긍정적, 젊은, 최초로, 다양한, 자랑스러운(긍정), 부정선거, 독재자, 독재정권, 장기집권(부정)’이 프렌체스카는 ‘최고의, 다양한, 아름다운, 인간적(긍정)과 부정선거, 독재, 독재자, 전통적(부정)’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윤보선은 ‘다양한, 젊은, 부드러운, 유일한(긍정), 부정선거, 짧았던, 물러난, 상징적, 패배한, 허수아비(부정)’이 공덕귀는 ‘아름다운, 가까운(긍정), 먼(부정)’이 많았다.

박정희는 ‘젊은, 바른, 긍정적, 다양한, 최고의(긍정), 독재자, 독재정권, 장기집권, 나쁜(부정)’이 부인인 육영수는 ‘좋아하는, 지적, 젊은, 새로운, 아름다운(긍정) 독재, 격한, 나쁜, 고집(부정)’이 많았다. 최규하는 ‘애도, 다양한, 유일한, 가까운(긍정), 주사, 짧았던, 물러난, 허수아비, 별다른(부정)’이 부인인 홍기는 ‘소박한, 조용한, 검소한, 극진한(긍정), 전통적, 조용한(부정)’이 많았으며, 11~12대인 전두환은 ‘젊은, 애도, 사랑하는, 적극적인, 화려한(긍정), 비리, 독재정권, 독재자, 주사, 조사를 받은, 저지른(부정)’ 그리고 부인인 이순자는 ‘화려한, 훌륭한, 건강한, 선호한(긍정), 비리, 억울한, 조사를 받은, 거친(부정)’이 많았다. 13대인 노태우는 ‘보통사람, 최초로, 평화적, 젊은, 적극적(긍정), 비리, 조사를 받은, 실패한, 나쁜, 부정부패, 독재자(부정)’ 이 김옥숙은 ‘젊은, 조용한, 다양한, 소박한(긍정), 비리, 별다른, 거친, 전통적(부정)’이 많았다.

표 8.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들 부부 간 긍·부정 형용사 표현 차이

		표현		전체	
		긍정	부정		
1대 ~3대 1948~1960	이승만	11,161(47.2%)	12,486(52.8%)	23,647(98.9%)	$\chi^2=61.471$ df = 1 p < .01
	프란체스카	185(71.7%)	73(28.3%)		
전체		11,346(47.5%)	12,559(52.5%)	23,905(100.0%)	
4대 1960~1962	윤보선	746(46.8%)	849(53.2%)	1,595(96.4%)	$\chi^2=16.353$ df = 1 p < .01
	공덕귀	44(73.3%)	16(26.7%)		
전체		790(47.7%)	865(52.3%)	1,655(100.0%)	
5~9대 1963~1979	박정희	28,378(46.9%)	32,184(53.1%)	60,562(93.0%)	$\chi^2=366.383$ df = 1 p < .01
	육영수	2,803(61.6%)	1,751(38.4%)		
전체		31,181(47.9%)	33,935(52.1%)	65,116(100.0%)	
10대 1979~1980	최규하	692(51.1%)	663(48.9%)	1,355(89.9%)	$\chi^2=1.454$ df = 1 p=0.228
	홍기	86(56.2%)	67(43.8%)		
전체		778(51.6%)	730(48.4%)	1,508(100.0%)	
11~12대 1980~1988	전두환	11,824(42.3%)	16,107(57.7%)	27,931(98.3%)	$\chi^2=37.372$ df = 1 p < .01
	이순자	269(56.3%)	209(43.7%)		
전체		12,093(42.6%)	16,316(57.4%)	28,409(100.0%)	
13대 1988~1993	노태우	8,116(48.0%)	8,804(52.0%)	16,920(98.9%)	$\chi^2=11.671$ df = 1 p < .01
	김옥숙	124(59.9%)	83(40.1%)		
전체		8,240(48.1%)	8,887(51.9%)	17,127(100.0%)	
14대 1993~1998	김영삼	20,924(61.2%)	13,275(38.8%)	34,199(96.5%)	$\chi^2=116.316$ df = 1 p < .01
	손명순	939(76.4%)	290(23.6%)		
전체		21,863(61.7%)	13,565(38.3%)	35,428(100.0%)	
15대 1998~2003	김대중	55,845(62.7%)	33,211(37.3%)	89,056(94.3%)	$\chi^2=83.465$ df = 1 p < .01
	이희호	3,712(68.9%)	1,676(31.1%)		
전체		59,557(63.1%)	34,887(36.9%)	94,444(100.0%)	
16대 2003~2008	노무현	126,327(60.7%)	81,839(39.3%)	208,166(97.8%)	$\chi^2=23.15$ df = 1 p < .01
	권양숙	2,972(64.2%)	1,659(35.8%)		
전체		129,299(60.8%)	83,498(39.2%)	212,797(100.0%)	
17대 2008~2013	이명박	154,774(62.4%)	93,414(37.6%)	248,188(98.1%)	$\chi^2=18.302$ df = 1 p < .01
	김윤옥	3,091(65.4%)	1,635(34.6%)		
전체		157,865(62.4%)	95,049(37.6%)	252,914(100.0%)	

\*박근혜대통령 제외

문민정부의 시작인 김영삼은 ‘애도, 세계화, 젊은, 바른, 적극적(긍정), 실패한, 불편한, 부정부패, 처친(부정)’이 손명순은 ‘애도, 바른, 개혁, 지적(긍정), 불편한, 시달린, 독재, 침통한(부정)’의 빈도가 높았고, 15대인 김대중은 ‘애도, 적극적, 젊은, 긍정적, 다양한(긍정), 기득권, 실패한, 전통적, 빨갱이(부정)’이 부인인 이희호는 ‘애도, 지적, 새로운, 적극적, 개혁(긍정), 비

리, 전통적, 독재, 불편한, 슬픈(부정)'이 많았다.

노무현은 '애도, 적극적, 젊은, 평화적(긍정), 기득권, 심각한, 실패한, 나쁜(부정)'이 부인인 권양숙은 '애도, 바른, 개혁, 가까운(긍정), 비리, 조사를 받은, 침통한, 아쉬움(부정)'이 많았다. 다음으로 이명박은 '적극적, 긍정적, 전략적, 실질적(긍정), 심각한, 격한, 부정적인, 실패한(부정)'이 부인인 김윤옥은 '세계화, 지적, 새로운, 다양한, 수수한(긍정), 비리, 평범한, 조용한, 무책임, 별다른(부정)' 많았으며, 마지막으로 박근혜는 '적극적, 긍정적, 실질적(긍정), 비리, 불통, 심각한, 부정부패, 무책임(부정)'이 인물을 설명하는 형용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표 9. 역대 대통령의 주요 긍·부정 형용사 표현

인물	이승만 1대~3대(1948~1960)		윤보선 4대(1960~1962)		박정희 5~9대(1963~1979)		최규하 10대(1979~1980)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1	자유	독재	자유	독재	자유	독재	큰	다른
2	큰	부정선거	큰	다른	큰	다른	애도	먼
3	지적	먼	다양한		지적	독재자	자유	독재
4	개혁	다른	지적	부정선거	개혁	먼	새로운	주사
5	새로운	독재자	새로운	짧았던	새로운	독재정권	다양한	짧았던
6	긍정적	독재정권	개혁	물러난	젊은	비리	지적	물러난
7	젊은	부정적	젊은	상징적	바른	부정적	유일한	비리
8	최초로	장기집권	부드러운	부정적	긍정적	강력한	가까운	허수아비
9	다양한	빨강이	유일한	패배한	다양한	장기집권	최고의	별다른
10	자랑스러운	비리		허수아비	최고의	나쁜	실질적	부정적
인물	전두환 11~12대(1980~1988)		노태우 13대(1988~1993)		김영삼 14대(1993~1998)		김대중 15대(1998~2003)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1	큰	독재	큰	비리	개혁	비리	개혁	다른
2	자유	비리	자유	독재	큰	다른	큰	비리
3	지적	다른	개혁	다른	애도	독재	자유	먼
4	개혁	먼	지적	먼	자유	먼	지적	독재
5	새로운	독재정권	새로운	조사를 받은	지적	강력한	새로운	강력한
6	젊은	독재자	보통사람	실패한	새로운	실패한	애도	부정적
7	애도	주사	최초로	나쁜	세계화	부정적	적극적	기득권
8	사랑하는	강력한	평화적	부정부패	젊은	불편한	젊은	실패한
9	적극적인	조사를 받은	젊은	독재자	바른	부정부패	긍정적	전통적
10	화려한	저지른	적극적	강력한	적극적	거친	다양한	빨강이
인물	노무현 16대(2003~2008)		이명박 17대(2008~2013)		박근혜 18대(2013~2017)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1	개혁	다른	큰	비리	개혁	다른		
2	큰	비리	자유	다른	지적	먼		
3	자유	먼	지적	먼	큰	비리		
4	지적	부정적	개혁	강력한	새로운	강력한		
5	새로운	강력한	새로운	부정적	자유	불통		
6	애도	독재	적극적	독재	적극적	부정적		
7	적극적	기득권	긍정적	심각한	다양한	독재		
8	젊은	심각한	다양한	격한	긍정적	심각한		
9	다양한	실패한	전략적	부정적인	실질적	부정부패		
10	평화적	나쁜	실질적	실패한	바른	무책임		

표 10. 역대 영부인의 주요 긍정·부정 형용사 표현

인물	포린체스카 1대~3대(1948~1960)		공덕귀 4대(1960~1962)		육영수 5~9대(1963~1979)		홍기 10대(1979~1980)		이순자 11~12대(1980~1988)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1	자유	먼	이름다운	먼	큰	다른	소박한	먼	큰	다른
2	큰	다른	큰		자유	먼	조용한	다른	화려한	비리
3	최고의	부정선거	가까운		좋아하는	독재	검소한	전통적	훌륭한	억울한
4	다양한	독재			지적	격한	극진한	조용한	건강한	먼
5	아름다운	독재자			젊은	나쁜	큰	소극적	선호한	조사를 받은
6	인간적	전통적			새로운	고집	가까운		적극적	거친
7	젊은	평범한			다양한	비리	서민적		소박한	불편한
8	대표하는				아름다운	독재자	아름다운		다양한	부정적
9					따뜻한	아픈	젊은		아름다운	별다른
10					개혁		최고의		젊은	
인물	김옥숙 13대(1988~1993)		손명순 14대(1993~1998)		이희호 15대(1998~2003)		권양숙 16대(2003~2008)		김윤옥 17대(2008~2013)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1	젊은	비리	애도	불편한	큰	다른	애도	다른	큰	비리
2	조용한	다른	큰	먼	애도	먼	큰	먼	세계화	먼
3	큰	먼	바른	다른	자유	비리	바른	비리	지적	다른
4	다양한	별다른	자유	시달린	지적	전통적	자유	조사를 받은	자유	평범한
5	소박한	거친	개혁	독재	새로운	독재	개혁	침묵한	새로운	조용한
6	활발한	전통적	지적	거친	적극적	불편한	지적	이슈중	다양한	무책임
7	수수한	부정적	새로운	조용한	개혁	슬픈	새로운	조용한	적극적	별다른
8	보통사람	서운한	가까운	침묵한	애뜻한	상징적인	가까운	별다른	수수한	조사를 받은
9	실질적	싸늘한	아름다운	슬픈	다양한	부정적	아름다운	슬픈	젊은	부정적
10	적극적		적극적	별다른	공정적	아픈	적극적	불편한	최고의	비리의

## 6. 토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과 영부인들이 언론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가 분석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언론보도 내 대통령과 영부인을 묘사한 긍정·부정 형용사 컴퓨터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여러 차이검증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대통령보다는 영부인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는 영부인보다는 대통령이 다양한 공부정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영부인은 책임적 위치에서 다소 벗어나 있고, 대통령의 역할을 보좌하는 입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국에서도 영부인의 언론보도를 연구한 미국의 결과에서도 영부인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다룬 기사를 부정적이었으며 (Scharer & Bissell, 2000; Winfield, 1997a, 1997b, 2001), 국내에서도 여성 활동의 증가 시대에 언론에 표현된 영부인의 활동성과 독자성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박재영·윤영민, 2008). 이는 영부인의 적극적 정치활동에 대해 여전히 사회적 판단은 긍

정적이지 않으며, 이는 그 만큼 정치활동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주로 영부인이 아닌 대통령이 대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긍·부정 형용사로 표현한 11명 전 대통령 간의 차이를 보면(연구문제 2-2), 역시 전두환이 가장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었고, 김대중이 가장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는 김대중은 최선의 대통령에 2위였고, 전두환은 최악의 대통령에 2위였던 이전 연구 결과(한국 대통령평가위원회·한국대통령학연구소, 2002)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긍정형용사가 많은 대통령의 순서는 김대중 > 이명박, 박근혜 > 김영삼 > 노무현 > 최규하 > 노태우 > 이승만 > 박정희 > 윤보선 > 전두환 이고 영부인의 순서는 손명순 > 공덕귀 > 프란체스카 > 이희호 > 김윤옥 > 권양숙 > 육영수 > 김옥숙 > 이순자 > 홍기였다.

박근혜, 이명박, 김영삼이 노무현보다 긍정적 형용사 사용이 많은 결과는 본문에서도 논의 되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2000년부터 2017년 7월 26일 까지의 분석이었다는 시기적 한계의 결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김영삼은 과거의 인물 이서 부정적 논쟁에서 벗어나 있었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역사적 평가는 이 분석기간 이후인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무현의 경우 분석 자료의 시기에 탄핵, 측근비리, 서거 등 여러 가지 극적인 사건들이 많았던 점도 영향이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분석 자료인 네이버의 경우 최근에는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2010년 이전엔 소위제도권 내 언론의 위상이 컸던 점도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7년 간 분석결과 노무현의 긍정적 형용사 사용은 박근혜, 이명박, 김영삼 보다 적었다'는 본 연구결과 역시 사회과학적이고 객관적 결과이기 때문에 본 결과 역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긍·부정 형용사 표현에 나타난 10명의 역대 영부인 간의 차이(연구문제 2-3)를 보면, 손명순, 공덕귀, 프란체스카는 긍정형용사의 출현이 가장 많았고, 홍기, 이순자는 부정형용사의 출현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에는 손명순 여사에 대한 긍정표현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초창기 영부인에 대한 긍정적 표현이 많았다. 이 중 공덕귀, 프란체스카, 육영수 순으로 긍정표현이 많았다. 초창기 영부인들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관대한 점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2000년에서 2017년이며, 비교적 과거 영부인에 대해 너무 비평적이고 부정적인 기사가 최근의 영부인들에 비해 많을 수 없는 점도 고려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승희(1997) 연구에서도 프란체스카, 공덕귀, 손명순은 '전통적 내조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긍정형용사가 많았던 손명순의 경우 본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 제2부속실의 최우선 홍보방침은 무홍보였을 정도로 영부인의 내조 활동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으며, 손명순은 청와대를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만드는데 몰두했다'(이영애, 1999)고

되어있다. 함성득(2001)과 박재영·윤영민(2008)의 연구에서도 손명순은 ‘은둔형 영부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손명순이 가장 긍정적 형용사가 많은 것에 관한 함의는 무엇보다도 영부인의 역할은 여성이 남성을 보좌해야한다는 성역할의 문제이기 보다는 영부인이라는 역할 자체가 대통령을 보좌해야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마치 부통령이나 장관 그리고 여왕을 보좌하는 대공도 유사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에서조차도 영부인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중시하고 영부인의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다룬 기사는 대체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도됐다(Scharrer & Bissell, 2000; Winfield, 1997a, 2001). 다만, 영부인의 사회, 정치, 외교적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본 연구결과나 박재영·윤영민(2008)의 연구에서 역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영부인의 단독활동기사가 감소하고 활동성과 독자성은 줄고 은둔성 이미지가 오히려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영부인 역할의 의미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전통적 내조형이었지만, 부정 형용사의 출현이 가장 높은 홍기<sup>12)</sup>여사의 경우는 ‘영부인의 역할은 내조형이어야 긍정적 평가가 된다’는 가설에 어긋난 결과였다. 물론 홍기의 경우 남편인 최규하가 가장 짧은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였고, 전체 영부인 분석자료가 21,684인데 반해 478의 매우 적은 양이 홍기여사의 자료인 점 등 특수한 상황이었음이 고려될 수 있겠다.

홍기 다음으로 부정적 형용사가 가장 많이 등장한 영부인은 이순자였다. 손명순, 공덕귀, 프란체스카와 비교해 비교적 대외적 활동이 많았던 육영수, 이순자는 함성득(2001)에 따르면 정치 및 정책적 역할까지 행사하는 활동적 내조형이었다고 평가된다. 정치적 내조형이었던 육영수, 이순자 모두 전통적 내조형이었던 손명순, 공덕귀에 비해 부정형용사가 많은 것은 그만큼 영부인의 정치활동이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결과였다. 더구나 ‘남편을 압도한다, 화려하다, 오만하다, 낭비가 심하다, 외국여행을 좋아한다(이승희, 1997)’는 등 변질된 정치적 내조형으로 평가되었던 이순자의 경우를 보면 영부인이 자칫 잘못된 정치활동을 할 경우 그 평판과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

12) 홍기(1916 ~ 2004.7.20.) 최규하 전 대통령의 부인.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1935년 최규하 전 대통령과 중매로 결혼했다. 1979년 10월부터 1980년 8월까지 영부인의 자리에 있었다. 1916년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남양(南陽), 정규교육은 받지 않았으나, 한학자 집안에서 전통적인 부덕을 쌓으며 성장하였으며 어려서 한문을 공부하였다. 1935년 11월 경성제일고보(지금의 경기고등학교)에 다니던 3살 연하의 최규하(崔圭夏) 전 대통령과 중매로 결혼하였다. 최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재임할 당시 현모양처(賢母良妻)의 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직접 살림을 맡아하였다.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0년 8월 말까지 대통령 영부인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외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절제된 생활을 하였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여러 해 동안 투병생활을 해왔으며, 2004년 7월 20일 세상을 떠났다. [네이버 지식백과] 홍기 [洪基] (두산백과)

결국 전통적 내조형 또는 은둔형의 영부인 역할이 시대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말 할 수는 없을 듯하다. 다만 내조를 벗어나 적극적 사회활동의 영부인 역할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활동을 하는가의 도덕적 문제에 그 바람직한 영부인 역할의 해답이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장 큰 연구결과 영역은 각 인물별 긍·부정 형용사의 표현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을 표현하는 긍·부정 형용사 중 ‘개혁, 큰, 자유, 지적, 새로운, 다양한(긍정), 다른, 비리, 먼, 독재, 강력한, 부정적(부정)’가 가장 보편적이었다. 그리고 영부인은 큰, 자유(긍정), 다른, 먼(부정)의 형용사가 모든 대상자들을 표현하는 데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중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에서만 ‘다양한’이 순위 밖에 있었고, 윤보선만 ‘비리’라는 부정형용사가 매우 적었다. 형용사분석 특성상 모두 자질, 행동, 업무 중 주로 개인의 자질에 관련된 표현이 많았다. 특히, 베스(Bass, 1990)의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분해보면 카리스마와 배려, 분발고취 등과 관계된 리더의 성향을 표현하는 변혁적 리더십과 관련된 표현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비리’ 등의 표현은 대통령의 교환과 조건적 보상의 거래적 리더십의 실패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다. 역시 요클(Yukl, 1998)의 리더십 행동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형용사가 가지는 특성 상 과업 지향적 행동 보다는 변화지향(개혁, 자유, 새로운, 다양한, 강력한), 관계지향(다른, 먼) 행동과 관련된 표현이 많았다. 역시 이정운(1997)의 여러 리더십 중 민주적(개혁, 자유, 다양한, 독재), 진취적(개혁, 큰, 새로운, 강력한(부정)) 리더십에 관련된 형용사가 많았다. 비리와 독재 등 비민주적이고 도덕성(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 2002)과 관련된 표현도 중요하였다. 다음으로 안병만(1993)의 개인적 인상과 특성 중 개인적 인상에서는 세련(개혁, 새로운), 명석(지적), 순수(새로운), 정직(비리, 부정적), 패기(개혁, 큰)와 특성 중에는 용기(개혁, 새로운), 결단력(개혁), 전문성(지적), 반대의견수용(다양한, 자유, 큰, 독재, 강력한(부정), 다른, 먼)과 관련된 표현이 있었다.

이외에도 대통령과 영부인의 표현 중 젊은(패기, 변혁적 진취적 리더십), 불통, 불편한(관계적 리더십), 바른, 조사를 받은(도덕성)의 표현도 빈도가 높았으며, ‘격한’이라는 성품과 관련된 표현도 눈에 띄었다.

최종적으로 역대 대통령 <연구문제 3-1>과 영부인 <연구문제 3-2>의 가장 주요한 긍·부정 형용사 표현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부부별로 정리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부부간 긍·부정 표현 차이를 살펴본 <연구문제 2-4>의 결과 공덕귀 <윤보선, 프란체스카> 이승만, 손명순 <김영삼, 육영수> 박정희 순으로 부부가 긍·부정 표현의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하와 홍기 부부만을 제외하고 부부간 긍·부정 표현차이는 모두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이승만은 ‘긍정적, 젊은, 최초로, 다양한, 자랑스러운(긍정), 부정선거, 독재자, 독재정권,

장기집권(부정)이 프렌체스키는 '최고의, 다양한, 아름다운, 인간적(긍정)과 부정선거, 독재, 독재자, 전통적(부정)'이 가장 많았다. 프렌체스카와 이승만은 부부간 차이로 보았을 때 공덕귀, 윤보선 부부 다음으로 이승만은 부정형용사가 프렌체스키는 긍정형용사가 많은 부부이다. 결국 이승만보다는 프렌체스카가 훨씬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전 논의에서도 이승만은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되었으며(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 2002), 본 연구에서 프렌체스카는 손명순, 공덕귀 다음으로 긍정형용사의 출현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이승만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최초로 자랑스러운 등이며 역설적으로 젊은이라는 표현이 많았으며, 프렌체스카는 아름다운, 인간적인 등의 표현이 많았다. 두 사람 모두 부정부패와 독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이전 연구(안병만, 1993)에서 이승만을 세련됨과 부정부패로 특징지을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다음으로 윤보선은 '다양한, 젊은, 부드러운, 유일한(긍정), 부정선거, 짧았던, 물러난, 상징적, 패배한, 허수아비(부정)'이 공덕귀는 '아름다운, 가까운(긍정), 먼(부정)'이 많았다. 윤보선은 본 연구에서 전두환 다음으로 부정형용사가 많았으며, 공덕귀는 손명순 다음으로 긍정형용사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부부차이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어 가장 영부인이 대통령에 비해 긍정형용사가 많은 부부로 분석되었다. 윤보선과 공덕귀<sup>13)</sup>의 평가는 이전 대통령과 영부인 연구에서도 거의 설명이 많지 않았다. 함성득(2001)의 연구에서 공덕귀를 '전문성은 있지만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유형'의 영부인으로 평가되어 있는 정도였다. 공덕귀는 그 약력에도 나타나지만 대한민국 현대사에 여성 사회활동가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윤보선은 젊은 부드러운 유일한 등의 긍정적 표현보다는 상징적 짧았던 물러난 패배한 허수아비의 부정적 표현이 많았고 공덕귀는 아름다운 가까운(긍정)의 표현이 많았기 때문에 부부간에 긍·부정 표현의 차이가 많았던 것은 명확하였다.

다음 박정희는 '젊은, 바른, 긍정적, 다양한, 최고의(긍정), 독재자, 독재정권, 장기집권, 나쁜(부정)'이 부인인 육영수는 '좋아하는, 지적, 젊은, 새로운, 아름다운(긍정) 독재, 격한, 나쁜, 고집(부정)'이 많았다.

---

13) 1911~1997. 여성 사회운동가. 경상남도 통영 출생. 1940년 일본 요코하마 공립여자신학교를 졸업. 김천 황금동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 그 뒤 1946년 조선신학교(한신대의 전신) 여자신학부의 전임강사, 1949년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해위(海葦) 윤보선(尹潽善, 1897~1990)과 결혼. 1974년 윤보선이 민청학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구속자가족협의회 회장, 이어 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부회장(1974~1978)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1977~1980)을 역임. 1977년부터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지원. 이어 1978년 통일방직사건 긴급대책위원회 위원, YH대책위원회 위원을 지냄. [네이버 지식백과] 공덕귀 [孔德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정희는 이전 연구에서 최선의 대통령이며 특히 비전 제시, 인사관리, 위기관리 능력과 경제 분야와 교육·과학·기술 분야 등의 자질 분야에서 우수한 인물(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 2002)로 평가되었으며, 안병만(1993)의 연구에서는 패기, 강경함, 인간적 신뢰감 면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었다. 본 연구의 ‘젊은, 바른, 긍정적, 다양한, 최고의’의 형용사는 그러한 박정희란 인물의 긍정성을 표현하는 형용사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음양으로 평가가 구분되는 인물이며 ‘독재자, 독재정권, 장기집권, 나쁜’의 부정적 형용사에서 여실히 표현되어 있다. 본 연구 분석에서 박정희와 육영수 부부는 부부간 긍·부정 표현의 간극이 10쌍의 부부 중 네 번째로 큰 부부로 박정희보다는 육영수의 긍정형용사가 많았다.

박정희에 비해 긍정적이었던 육영수는 ‘학생시위가 발생하면 대학교를 찾아가 학생들과 대화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봉사활동도 적극 수행’하는 등 전통적 여성역할과 공식적 정치 역할을 겸비하는 정치적 내조형으로 평가되었다. 이외의 연구에서는 심지어 ‘정치 및 정책적 역할 까지 행사하는 활동적 내조형의 육영수(함성득, 2001)’, ‘대통령을 동반하지 않은 채 활동하는 독자적인 영부인(박재영·윤영민, 2008)’으로 적극적 사회 참여형 영부인으로 육영수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육영수의 적극성이 박정희에 비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공덕귀, 프렌체스카에 비해서는 부정적 형용사가 많았던 결과에 비취 박정희독재의 그늘 또는 영부인의 적극적 정치 참여활동에 대한 찬반론으로 평가가 양분되는 면이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최규하는 ‘애도, 다양한, 유일한, 가까운(긍정), 짧았던, 물러난, 허수아비, 별다른(부정)’이 부인인 홍기는 ‘소박한, 조용한, 검소한, 극진한(긍정), 전통적, 조용한(부정)’이 많았다. 긍정형용사 사용에 있어 최규하는 11명 중 6위였고, 홍기는 10명 중 10위로 최하위였다. 또한 본 부부는 부부간 형용사사용에 있어 차이가 없는 유일한 부부이다. 최규하는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2002) 평가에서도 최악의 대통령이었으며, 함성득(2001)도 홍기를 전통적 내조형으로 평가했다. 이는 정치사적으로 보아도 임기가 가장 짧았던 그래서 허수아비, 별다른, 짧았던 이라는 부정형용사가 많은 최규하와 전통적 내조형이었지만 이러한 전통적 내조형이 오히려 ‘소극적이고 조용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되는 홍기 두 부부간의 다소 안타까운 조화가 보여지는 결과였다.

전두환은 ‘젊은, 애도, 사랑하는, 적극적인, 화려한(긍정), 비리, 독재정권, 독재자, 조사를 받은, 저지른(부정)’ 그리고 부인인 이순자는 ‘화려한, 훌륭한, 건강한, 선호한(긍정), 비리, 억울한, 조사를 받은, 거친(부정)’이 많았다. 본 연구의 부정형용사 표현에 있어 전두환은 가장 부정 표현이 대통령 중 많았고, 이순자 역시 영부인 중 홍기 다음으로 많았다. 이순자는 이전 연구(이승희, 1997)에서 “남편을 압도한다, 화려하다, 오만하다, 낭비가 심하다”의 변질된 정치 내조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도덕한 사회사업, 외국여행 등과 함께 활동적인 인물(박재영·윤영민,

2008)로 파악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부부는 유사하게 ‘화려한, 비리, 조사를 받은, 저지른, 독재자’의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태우는 ‘보통사람, 최초로, 평화적, 젊은, 적극적(긍정), 비리, 조사를 받은, 실패한, 나쁜, 부정부패, 독재자(부정)’이 김옥숙은 ‘젊은, 조용한, 다양한, 소박한(긍정), 비리, 별다른, 거친, 전통적(부정)’이 많았다. 노태우는 대통령 중 7위, 김옥숙은 8위 등 긍정성에 있어 좋지 못한 상태였다. 안병만(1993)은 노태우를 세련됨과 우유부단으로 묘사했으며, 김옥숙은 ‘막후 정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꺾속 내조형 또는 그림자형(함성득, 2001)’ 그리고 ‘퇴임 후에 6공화국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권력 축재형(이승희, 1997)’ ‘은둔적인 영부인(박재영·윤영민, 2008)’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노태우의 특징은 본인이 노력하여 자신을 이미지화하고 싶었던 ‘보통사람’ ‘평화적’이라는 단어가 노태우라는 인물을 표현하는 대표적 형용사로 자리잡고 있었다. 객관적 평가를 떠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PI가 실현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였으며 전략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의미있는 결과였다.

김영삼은 ‘애도, 세계화, 젊은, 바른, 적극적(긍정), 실패한, 불편한, 부정부패, 거친(부정)’이 손명순은 ‘애도, 바른, 개혁, 지적(긍정), 불편한, 시달린, 독재, 침통한(부정)’의 빈도가 높았다. 김영삼은 민주적 정책 결정 및 실행능력, 정치·행정 분야에서 높은 평가(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 2002)를 받고 있었으며, 손명순은 전통적 내조형(함성득, 2001)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손명순의 가장 긍정형용사 빈도가 높았고, 김영삼 역시 대통령 중 긍정표현이 높은 편으로 4위였다. 세계화, 젊은, 적극적, 바른 개혁 등의 긍정적 표현이 김영삼, 손명순을 구성하고 있었다.

김대중은 ‘애도, 적극적, 젊은, 긍정적, 다양한(긍정), 기득권, 실패한, 전통적, 빨갱이(부정)’이 부인인 이회호는 ‘지적, 새로운, 적극적, 개혁(긍정), 비리, 전통적, 독재, 불편한, 슬픈(부정)’이 많았다.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2002)는 외교·안보·통일 및 사회·복지·문화 분야에 있어 최고의 대통령으로 김대중을 꼽았다. 김대중은 본 연구에서 가장 긍정형용사가 많은 대통령으로 분석되었다. 이회호는 전체 10명의 영부인 중 4위로 긍정형용사가 많았다. 함성득(2001)은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책적 역할은 하지 않는 역할’로 박재영·윤영민(2008)은 ‘비공식적 활동이나 부정적인 내용으로 자주 보도된 영부인’으로 이회호를 분석하였다. 김대중과 이회호는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반면 빨갱이, 기득권, 비리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공존하고 있었다.

노무현은 ‘애도, 적극적, 젊은, 평화적(긍정), 기득권, 심각한, 실패한, 나쁜(부정)’이 부인인 권양숙은 ‘애도, 바른, 개혁, 가까운(긍정), 비리, 조사를 받은, 침통한, 아쉬움(부정)’이 많았다. 노무현에 관한 긍정형용사는 대통령 중 5위였고, 권양숙은 영부인 중 6위였다. 노무현의 삶

의 마감은 '애도, 침통한'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주었으며, 적극적, 젊음, 개혁, 가까운의 긍정적 이미지도 부부가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박재영·윤영민(2008)이 권양숙은 '비공식적 활동이나 부정적인 내용으로 자주 보도된 영부인'이었다고 분석한 것처럼, 권양숙의 경우 조사를 받은, 비리, 아쉬움 등의 부정형용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명박은 '적극적, 긍정적, 전략적, 실질적(긍정), 심각한, 격한, 부정적인, 실패한(부정)'이 부인인 김윤옥은 '세계화, 지적, 새로운, 다양한, 수수한(긍정), 비리, 평범한, 조용한, 무책임, 별다른(부정)'이 많았다. 전략적, 실질적 같은 긍정형용사는 다른 대통령에게서는 잘 등장하지 않은 형용사였다. 긍정성에 있어 이명박은 2위였고, 김윤옥은 5위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에서도 제시하겠지만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기에 이명박은 각종 비리와 관련 구속되었으며 김윤옥 역시 비리와 관련되어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명박, 박근혜의 평가는 향후 역사적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재평가가 계속될 것이며, 본 연구 데이터가 빅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시기적 한계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는 '적극적, 긍정적, 실질적(긍정), 비리, 불통, 심각한, 부정부패, 무책임(부정)'이 인물을 설명하는 형용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박근혜는 과거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많은 긍정형용사가 있는 대통령이었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불통, 무책임, 부정부패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명박과 함께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박근혜는 구속 수감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불행한 대통령이다. 본 연구에서 박근혜의 데이터가 가장 많았음에도 시기적으로 현재는 역사적으로 박근혜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년 동안 언론에 표현된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의 모습을 사용된 긍·부정 형용사의 객관적 도출을 통해 밝혀보았다. 본 연구결과가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대통령 소통 담당자 입장에서 주는 가장 큰 실무적 함의는 언론에 표현되는 인물의 모습은 해당인물이 원하는 의도가 포함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노태우의 경우 본인이 가장 표현되기에 희망했던 '보통사람'이라는 표현이 언론에서도 상당한 양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또한 그러한 당사자의 노력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특징이 없는 '자유, 큰, 지적, 개혁, 새로운' 등의 형용사가 주로 인물의 긍정성을 매우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언론에 표현되기 위해서는 표현되기 원하는 형용사를 본인 또는 소통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조용한, 전통적'의 형용사들은 부정성과 긍정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정확한 긍·부정성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쓰여진 문맥을

통해 판단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상대적 의미의 긍정 형용사과 비교해 부정적으로 분류되었다는 연구 분석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연구자 역시 결과의 해석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한계이다. 어쩌면 데이터의 양은 방대하지만, 분석이 때로는 세밀할 수 없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빅 데이터 분석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또 다른 한계는 세부적인 언론보도와 관련된 논점들의 사례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전수조사(총 3,293,627개(대통령 기사 3,199,338개 + 영부인 기사 94,289개 도출)) 기사들을 모두 엑셀파일로 조사하여 데이터화 해 놓았음에도 이 가운데 일부의 보도 논점을 토론과 합의 부분에 풀어 쓸 수 없었다. 이유는 전체 빅 데이터에서 나오는 개량적인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다보니 특정 사례를 통해 빅 데이터 결과를 설명하다보면 자칫 기사 사례 한 건 한 건의 주관성이 전체 빅 데이터의 양적 객관성 결과의 보충 설명사례들로는 적합하지 못하였다. 데이터를 좀 더 세분화한 후 자료를 재분석한 후 언론보도의 논점들과 세부 기사 사례들을 비교 제시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영부인이 대통령에 비해 모두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영수 앞에 '독재'라는 표현이 많은 사례와 같이 영부인이 남편인 대통령의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받는 사례들도 많이 발견되었다. 언론에서 표현된 모습이 반드시 역사적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결과였다.

더불어, 기존 연구는 대통령의 자질, 행동, 업무 등으로 리더십 유형을 구분하였고, 특히 거래적과 변혁적(Bass, 1990) 행동 또는 과업, 관계, 변화 지향적 행동(Yukl, 1998) 등으로 대통령 행동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이러한 리더십 행동 내용분석은 일반적으로 코더들을 활용한 후 코더의 주관성을 통제하기 위해 코더 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지만, 역설적으로 연구 과정에서 코더 간 신뢰도 분석 전 코더의 주관적 판단 영역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연구이다. 반면 본 연구 분석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순 형용사 빈도분석이어서 보다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있지만, 리더십 유형의 의미구조를 파악하는 코더의 주관적 영역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대통령의 자질, 행동, 업무 구분 중 주로 형용사 연구의 특성상 자질 및 행동 관련 특성의 표현 중심이었으며, 보다 전문적인 업무관련 평가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박근혜 등 최근 대통령은 가장 많은 데이터가 분석되었음에도 역사적 평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역사가 지난 후에 추후 재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 하는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김영용 (2001). 한국 미국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비교 연구: 기업 관리자 피드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권 4호, 389-415.
- 김현주 (1999).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커뮤니케이션. <한국방송학보>, 12권 1호, 45-73.
- 박종민 (2008).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 - 1953년에서 1994년까지 '대한뉴스' 내 대통령의 PI 연구. <한국언론학보>, 52권 3호, 151-180.
- 박종민·권구민 (2011). 우리나라 시(市)·군(郡) 공식웹사이트 내 시·군 대표 인사말의 환상주제. <광고연구>, 88호, 37-65.
- 박종민·김민경 (2012). 우리나라 국가조직문화와 제 18대 대통령 선거 예상 후보들의 리더십 유형 비교 분석: 경합가치모형의 적용. <광고학연구>, 23권 5호, 7-27.
- 박종민·김윤식 (2011). 도시 대표 리더십과 문화적 차이: 한국, 일본, 미국, 영국 50대 도시의 공식 웹사이트 내 시장 인사말 분석. <광고학연구>, 22권 1호, 81-101.
- 박재영·윤영민 (2008). 한국의 영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40년간 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10호, 71-108.
- 방정배·최윤희 (1989). <여론과 정치 설득>. 서울: 나남.
- 송현주 (2006). 대통령에 대한 감정과 정책 이슈의 유인가적 유사성이 뉴스매체의 집회효과에 미치는 영향: 접근 가능성과 적용성 모형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3호, 308-336.
- 신호창·김찬아 (1999). 대통령 PI(President Identity) 전략 정립을 위한 미국국가최고지도자의 PI 전략 비교. <한국커뮤니케이션학>, 7집, 259-281.
- 안병만 (1993). <역대 통치자의 자질과 정책 성향 연구>. 51-78.
- 윤나리·임선희·진용미 (2013).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 및 헤어스타일 분석. <한국미용예술학회지>, 제7권 1호, 79-91.
- 이경렬 (2004). CEO 이미지의 브랜드적 가치에 관한 연구: CEO 이미지의 구성 요소 및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8권 1호, 161-189.
- 이규완 (2003). 소셜 삼국지에 등장하는 이미지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3권 1호, 125-168.
- 이동기·박종민 (2011). 대국민 정부PR의 시대별 특성 연구: 1953년에서 1994년까지 <대한뉴스> 보도내용 분석.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304-332.
- 이승희 (1997, 9월). <영부인의 유형과 역할 연구>. 한국정치학회 월례발표회.
- 이정윤 (1997). 역대 대통령의 통치이념과 리더십에 대한 고찰. <군사논단>, 11권 1호, 214-233.

- 이재영 (2013). 소통의 시대 대통령의 이미지에 관한 주관성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30호, 389-317.
- 이효성 · 이상도 (2003). 대학생들에 의한 텔레비전의 단순이용과 주의 깊은 이용이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 변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참여정부 초기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7권 2호, 285-345.
- 정영수 (1986). <커뮤니케이션학적 관점에서의 Image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대통령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재민 (2006). 미디어의 CEO 이미지 재구성 과 주식 평가. <한국언론정보학보>, 34권, 244-275.
- 최영재 (2006). 정치인의 이미지 관리. <한국언론학보>, 50권 1호, 378-405.
- 최영재 (2011). 대통령 커뮤니케이션과 대통령 보도. <언론과사회>, 11권 3호, 349-380.
- 최평길 (1997). 정치학자 204명의 역대 대통령 평가. <한국논단>, 100권 1호, 100-110.
-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 한국대통령학연구소 (2002). <한국의 역대 대통령 평가>. 서울: 조선일보사.
- 함성득 (2000). 한국 대통령의 업적 평가: 취임사에 나타난 정책의 지표와 그 성취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보>, 34권 4호, 93-118.
- 함성득 (2001). <영부인론>. 서울: 나남.

- Burrell, B. C. (2000). Hillary Rodham Clinton as first lady: The people's perspective. *The Social Science Journal*, 37(4), 529-546.
- Caroli, B. B. (1995). *First Ladies*. NY: Oxford University press.
- Gardetto, D. C. (1997). Hillary Rodham Clinton, Symbolic Gender Politics, and the New York Times: January–November 1992. *Political Communication*, 14(2), 225-240.
- Gough, H. G., & Heilbrun, A. B., Jr. (1965). *The Adjective Check List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Gustin, M. (2000). Using all available means of persuasion: The twentieth century first lady as public communicator. *The Social Science Journal*, 37(4), 563-575.
- Guy, M. E. (1995). Hillary, health care, and gender power. In G. Duerst-Lahti & R. M. Kelly (Eds.), *Gender power, leadership, and governance* (pp. 239-256).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elly, R. M., & Boutilier, M. (1978). *The making of political woman*. Chicago, IL: Burnham Inc.

- Maranell, G. (1970). The evaluation of presidents: An extension of the Schlesinger polls. *Journal of American History*, 57, 104-113.
- O'Connor, K., Nye, B., & Van Assendelft, L. (1996). Wives in the White House: The political influence of first ladies.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26(3), 835-853.
- Ridings, JR. W., & Milver, S. (1997). *Ranking the Presidents*. Citadel Press. MJ.
- Rubenzler, S. J., Faschingbauer, T. R., & Ones, D. S. (2000). Assessing the U.S. Presidents using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Assessment*, 7(4), 403-420.
- Scharrer, E., & Bissell, K. (2000). Overcoming traditional boundaries: The role of political activity in media coverage of first ladies. *Women & Politics*, 21(1), 55-83.
- Simonton, D. K. (1981). Presidential greatness and performance: Can we predict leadership in the White House? *Journal of Personality*, 49, 306-323.
- Simonton, D. K. (1985). The vice-presidential succession effect: Individual or situational determinants? *Political Behavior*, 7, 79-99.
- Simonton, D. K. (1986a). Presidential greatness: The historical consensus and its psychological significance. *Political Psychology*, 7, 259-283.
- Simonton, D. K. (1986b). Presidential personality: Biographical use of the Gough Adjective Check Li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149-160.
- Simonton, D. K. (1988). Presidential Style: Personality, Biography,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28-936.
- Stooksbury, K. E., & Edgemon, L. M. (2003). The first lady scholarship reconsidered: A review essay. *Women & Quarterly*, 27(4), 805-818.
- Watson, R. P. (1997). The first lady reconsidered: Presidential partner and political instituti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27(4), 805-818.
- Watson, R. P. (2000a). A review essay: Hillary's legacy? Recent literature on the First Lady. *The Social Science Journal*, 37(4), 653-658.
- Watson, R. P. (2000b). *The presidents' wives: Reassessing the office of first lady*.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 Wekkin, G. D. (2000). Role constraints and first ladies. *The Social Science Journal*, 37(4), 601-610.
- Winfield, B. H. (1997a). The making of an image: Hillary Rodham Clinton and American

journalists. *Political Communication*, 14(2), 241-253.

Winfield, B. H. (1997b). The first lady, political power, and the media: Who elected her anyway. *Women, Media, and Politics*, 166-179.

Winfield, B. H. (2001). From a sponsored status to satellite to their own orbit: The first lady news at a new century. *White House Studies*, 1(1), 21-31.

최초 투고일 2018년 4월 7일

게재 확정일 2018년 7월 13일

논문 수정일 2018년 7월 31일

Abstract

## Past presidents and first ladies expressed in media since 2000

The dictionary method computational text analysis by the adjective check list

**Park, Jongmin**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used the dictionary method computational text analysis by the adjective check list to analyze how media has covered the previous presidents and first ladies in South Korea from 2000 to 2017. A total of 1,080,288 adjectives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first ladies described more positively than presidents in general and the order of more frequently quoted previous presidents in positive adjectives are as follows; Kim Dae-jung > Lee Myung-bak, Park Geun-hye > Kim Young-sam > Roh Moo-hyun > Choi Kyu-hah > Roh Tae-woo > Syngman Rhee > Park Chung-hee > Yun Posun > Chun Doo-hwan and the order of more frequently quoted previous first ladies in positive adjectives are as follows; Son Myung-sun > Gong Deok-gwi > Franziska Donner > Rhee Hee-hoh > Kim Yoon-ok > Kwon Yang-sook > Yuk Young-soo > Kim Ok-suk > Rhee Soon-ja > Hong Gi. Among the positive and negative adjectives expressing the presidents, "reformative, big, freedom, intellectual, new, diverse (positive), different, corruptive, distant, dictatorial, strong, negative (negative)" were the most common while among the positive and negative adjectives expressing the first ladies, "big, freedom (positive), different, distant (negative)" were the most common. The analysis of each character was discussed in depth with previous studies.

**Keywords:** past presidents, past first ladies, adjective check list, computational text analysis, dictionary method